

# “불교학 연구방법론 다양화 필요”

## 김용표 교수, 응용불교학 포용성 강조

불교학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다변화 하는 문제는 응용불교학 관련 연구 진행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사진)는 <불교연구> 17집에 ‘응용불교학의 학문적 성격과 과제’를 발표하고, “불교의 문화와 사상은 윤리, 예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철학 등의 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불교의 이러한 요소를 연구 주제로 삼는 응용불교학은 그 자체가 학문간의 상호 교섭과 공동 연구의 보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응용불교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 시대에서 불교의 역할과 실천 방법을 연구하는 ‘교리의 현실 응용 이론’ 정도로 이해돼 왔다.

김 교수는 “불교심리학 하면, 그 안에 종교이나 유식학을 포괄시킬 수 있고, 불교윤리학이라고 하면 반야·보살사상이나 계율을 망라할 수 있으며,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면 화엄·법화사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응용불교학에서 다룰 수

있는 72개의 분야를 새롭게 제시하고, “연구 분야의 세분화는 물론 이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다른 학문 분야의 방법론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경전에서 현실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목한 김 교수는 “불교

## 연구분야 세분화 절실

## 72개 분야 새롭게 제시

의 출발점은 철저히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실존적 문제였고, 이에 관심을 보인 부처님은 리얼리스트”라고 말해, 응용 불교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질문자와 문답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은 대중의 현실적 고뇌를 해소해 주고 실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현학적인 교리나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끼어들 수 있는 틀



은 없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원전에 내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현재의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교수는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역사적 위치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용불교학의 해석학적 과제”에서 재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경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평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이를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상황적 이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는 “이를 계기로 학계 스스로 종파나 종파 연구에 머물러 있는 허물을 벗고, 불교학이 종합학문이라는 인식 아래 인문학으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자연학과도 과감히 연대

## 응용불교학 관련 주요 서적

- <불교와 현대세계> (동국대출판부, 1976)
-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출판부, 1987)
- <21세기 문명과 불교> (동국대출판부, 1996)
-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대한불교진흥원, 1996)
-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와 불교> (우리출판사, 1994)
- <불교에서 본 인생과 세계> (출판원, 1998)
- <불교의 현대적 조명> (민족사, 1989)
- <민중불교의 탐구> (민족사, 1989)
- <불교와 현대사상> (동화출판공사, 1992)
- <현대사회와 불교> (불일출판사, 1996)
-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 <미래사회와 불교> (원광대학교, 2000)

하는 학제간 협동과정의 설치를 통한 공동연구의 장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다. 사진은 지난 6일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군위 인각사현장 지도위원회 장면.

## 문화재위원회 위원 교체 앞두고

# “불교 문화재전문가 대거 보강 한목소리”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 포함을 건의했다. 총무원은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례 효율적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부장이 문화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기사남쳐 학술기행 ‘부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쉽니다.

# “통일신라 시대정신은 일승사상”

## 이종철 교수 주장

통일신라시대를 열고 지탱해 준 사회 통합이론은 일승(一乘) 사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사진)는 ‘통일신라시대의 사회통합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유식과 화엄사상의 융합 형태인 일승사상은 신라인에게 시대의 현실성을 포착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원효와 의상 스님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신라의 시대정신을 고찰한 이 교수는 “중국과는 달리 불교에서 원효적인 평등관



을 수용했던 신라의 사상가들은 법상종의 현실주의적 시각, 곧 현실의 차별을 긍정하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승의 공사상에 입각한 중생제도를 위해서 평등관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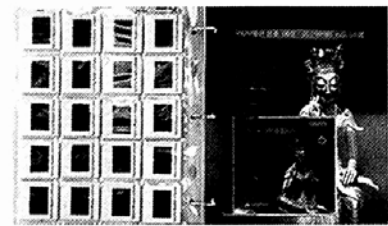
이 교수에 따르면 원효 스님은 중국의 법상종이 삼승(三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불성의 보편적 내재성에 입각한 중생의 평등관이라 할 수 있는 일승(一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원효 스님이 분별보다는 화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상 스님 역시 ‘일승법계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승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삼승을 일승에 포섭시켰다.

오종욱 기자

## 중앙박물관 소장명품 100선 슬라이드-CD롬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컨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박물관회와 공동으로 우리 문화재 명품 100선을 소개한 슬라이드와 CD롬(사진)을 17일 발매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100점을 뽑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불교조각, 금속공예, 토기, 와전, 청자, 분청사기 등 9개 분야별로 나뉘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과 금동반가사유상(국보 78호, 83호), 연가7연명 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을 비롯해 20여 점의 불교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CD롬은 자료검색은 물론, 내려받기 해서 편집이 가능하게 제작해 문화상품 개발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측은 “꼭 알아야 할 만한 문화재만 엄선했다”며 “출판 편집이나 캐릭터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중앙박물관과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선문사대웅보전 내부 공포 사이 포벽화.

## 대웅보전 장엄회화에 초점

### ‘미술사학지’ 3호

불교미술에서 주변부로 인식되어 온 사찰벽화나 장식미술을 양식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펴낸 <미술사학지> 제3호 ‘선문사·내소사·개암사의 불교미술’은 이 세 사찰의 대웅보전 장엄회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포 사이의 포벽화를 포함한 대웅보전 내·외부벽화는 물론 천장화, 가구재의 장엄화로 나눠 사진과 함께 설명을 실었다.

박물관 미술부는 “이들 사찰의 벽화는 최초 조사 때보다 지워지고 개수되어 원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많다”며 “앞으로 사찰벽화와 장식화에 대한 연구 및 보존, 복원 등

에 보고서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신, 의결, 보승 등 조선 후기 이들 세 사찰을 중심으로 활약한 화승들의 제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보고서의 매력이다.

이번 보고서는 1969년 전국 사찰의 불화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한 차례 조사된 이래 1994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도판은 각 사찰의 전각별로 배열했으며 이들 사찰의 역사와 불교회화를 고찰하는 보고서를 덧붙였다. 지정문화재는 물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지금은 도난당한 문화재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권형진 기자

#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 ★래빙인에게 단일 첫 말음, 초사(招辨)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 ★해당 국수(局數)에, 들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났던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절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상황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희망사 · 승진사 · 구제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한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일주일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 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靈양오행가·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 (₩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2000페이지)·미색용지·유펜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에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후,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시오. 저자인 曺 卜子 曠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북문 問 윤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土)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나 필요한 분은 주문하십시오.